



설화 속 오줌 꿈 파는 행위의 심리적 특징과 그 의미

설화 <진의매몽>과 <문희매몽>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Urination-dream Trade in Tales

저자 (Authors)	노영운 Noh, YoungUn
출처 (Source)	한국학연구 40 , 2012.03, 39-62(24 pages)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40 , 2012.03, 39-62(24 pages)
발행처 (Publisher)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CENTER FOR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837911
APA Style	노영운 (2012). 설화 속 오줌 꿈 파는 행위의 심리적 특징과 그 의미. 한국학연구, 40, 39-6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1/24 09:4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설화 속 오줌 꿈 파는 행위의 심리적 특징과 그 의미

- 설화 <진의매몽>과 <문희매몽>을 중심으로 -

노영윤*

국문초록

이 논문은 꿈을 사고파는 행위의 화소가 중심인 매몽(買夢) 설화 『고려사』의 <진의매몽>과 『삼국유사』의 <문희매몽>에서 오줌 꿈 매매를 통해 오줌 꿈 판 사람과 오줌 꿈 산 사람의 심리적 특징을 살피고, 이에 오줌 꿈 파는 행위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설화에서 오줌 꿈을 판 언니 측과 오줌 꿈을 산 동생 측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오줌 꿈 파는 행위의 심리적 특징을 밝혀보았다. 언니는 배려와 아량, 동생은 소유욕과 적극성을 보였는데, 이러한 자매의 심리가 꿈 매매를 성사시키고 그 징험이 발휘될 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다음으로 오줌 꿈 파는 행위의 의미를 밝혀보았다. 오줌 꿈의 매매는 길몽의 매매라고 보았는데, 이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와 배치된다. 이에 길몽인 오줌 꿈을 판다는 것은 언니가 그 꿈을 사고자 한 동생이 꿈의 징험을 발휘할 수 있길 바란 뜻이다. 이는 동생이 언니에게 오줌 꿈을 비단 치마로 사겠다고 한 후 스스로 만든 약식의 의식에 따라 달라고 부탁했을 때 언니가 그대로 수행해 준 것에서 알 수 있다. 결국, 오줌 꿈 파는 행위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가늠하여 상대방을 드높여주는 행위를 한 것이고, 그 이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고전문학 전공)

면에는 자신의 소망도 상대방을 통해 성취되길 바란 뜻이 있는 것이다.

주제어 : 매몽, 길몽, 징험, 이랑, 오줌 꿈 파는 행위

1. 서론

매몽(買夢) 설화는 꿈을 사고파는 행위의 화소가 중심인 설화를 말한다. 재력이나 지위, 권세로 세상을 지배할 대길 운으로 해몽되는 오줌 꿈의 화소를 담고 있는 매몽설화는 『고려사』의 고려세계(高麗世系) 설

- 1) 우리문화 기획팀, 『우리 꿈 큰 사전』, 동학사, 2002, 87~88면. 오줌 꿈에 대한 해몽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오줌이 내를 이루거나 마을을 덮치는 꿈은 가까운 시일에 엄청난 재력을 지니거나 지위나 권세로 자신의 영향력을 세상에 과시하게 된다고 해몽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의 오줌이 별안간 큰 바다를 이루는 꿈은 자신의 작은 힘으로 큰 세력을 움직이거나 큰 규모의 자본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된다고 해몽하고 있다. 이 해몽과 관련된 오줌 꿈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동권, 『방노몽고』, 『한국민속논고』, 집문당, 1984. (정운채, 『오줌 꿈을 사는 이야기의 전승 양상과 문학치료적 의미』, 『국문학연구』 5호, 국문학회, 2001, 282면. 재인용) 김유신(金庾信)의 누이 문희(文姬)가 언니인 보희(寶姬)의 오줌 꿈을 사서 김춘추(金春秋)의 아내가 되고 문무왕(文武王) 법민(法敏)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문학치료 가운데 특히 감상치료에 대한 한 가지 실마리로 삼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실려 있으며, 『고려사(高麗史)』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보육(寶育)의 둘째 딸 진의(辰義)가 언니의 오줌 꿈을 사서 당나라 숙종(肅宗)과 인연을 맺어 아들 작제건(作帝建)을 낳았다는 이야기로 바뀌어 있다. 이 큰바 선류몽(旋流夢)과 매몽(買夢)이 결합한 형태인 셈이다.; 권태효, 『선류몽·담의 거인설화적 성격』, 『국비문학연구』 2호, 한국구비문학회, 1995, 176~177면. 문희의 매몽 이야기에서 김유신의 만누이 보희는 ‘서악(西岳)에 올라가 오줌을 누었더니 서울에 가득 찬 꿈’을 꾸었다고 하였다. 이 꿈을 산 동생 문희는 김춘추와 결혼하여 문명왕후(文明王后)가 되었고 만아들 법민(문무왕)을 낳았다고 하였다.; 박계옥, 『선류몽 설화의 신화론적 고찰』, 『세국어교육』 77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7, 690~692면. 보육의 이야기에서 성골장군 강충의 둘째 아들 보육이 ‘곡령에 올라가 남쪽을 향하여 오줌을 누었더니 삼한의 산천에 넘쳐서 은혜로 변한 꿈’을 꾸었다. 형 이제건이 만드시 하늘을 지탱할 기둥을 낳을 것이라고 하여 그의 딸 덕주와 혼인을 시켰다. 보육은 두 딸을 낳았는데 막내딸 진의가 아름답고 총명하였다. 그리고 보육의 딸 이야기에서 보육의 큰딸이 ‘오관산(五冠山) 꼭대기에서 오줌을 누었더니 천하가 넘치는 꿈’을 꾸었다. 이 꿈을 산 동생 진의는 당숙종 황제와 결혼하여 정화왕후(貞和王后)가 되었고 아들 작제건을 낳았다. 현정왕후 이야기에서도 경종의 비 황보 씨가 ‘곡령에 올라가 오줌을 누었더니 도성에 흘러넘쳐서 모두 은바다로 되는 꿈’을 꾸었다. 점쟁이가 아들

화 <진의매몽>과 『삼국유사』의 설화 <문희매몽>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설화는 진의 언니와 진의, 보희와 문희 즉, 자매 관계에 있는 이들이 오줌 꿈을 매매하는 매몽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꿈 매매 이후 꿈을 산 동생 측 다시 말해, 진의와 문희가 왕후가 되고 그의 아들들이 보위에 오른다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관심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매몽은 자연스럽게 꿈을 판 사람 보다는 꿈을 산 사람, 꿈을 판 행위보다는 꿈을 산 행위에 가치 있는 의미를 두었다. 이것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데, <진의매몽>에 관해 논의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문희매몽>에 관해 논의한 선행연구는 존재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는 <문희매몽>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사 검토를 대신하려 한다.

먼저 서사의 중심인물을 문희로 보면서 오줌 꿈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이윤석²⁾, 권태효³⁾, 최기숙⁴⁾, 최우주⁵⁾가 있다. 이는 꿈에 대

을 넣으면 입금이 될 것이라고 하였고, 비는 아들 현종을 낳았다.; 최혜영, 『테메테르와 유화 : 농경 및 유목민 신화로 본 동서 문명 교류 가능성』, 『역사와 경제』 58권, 부산경남사학회, 2006, 83면. 미디어 공주 만다네 이야기에서도 미디어왕이 ‘딸의 방뇨로 전도시가 물에 잠기고 아시아 전역까지 범람하는 꿈’을 꾸었다. 신관이 딸이 낳을 아들이 천하를 호령할 것이라고 해석하였고, 딸은 오리엔트를 재통일한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을 낳았다.

- 2) 이윤석, 『『삼국유사』에 들어있는 ‘夢’자에 관한 소고』, 『한국전통문화연구』 1집,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85, 93면. 문희가 보희에게 꿈을 산 것은 어떤 일의 조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로 꿈을 사고파는 행위가 일어났으며, 문희가 춘추공과 결혼하고 훌륭한 자식들을 출산한 것은 꿈을 산 조짐이 들어맞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였다.
- 3) 권태효, 『선류몽’담의 거인설화적 성격』, 『구비문학연구』 2호, 한국구비문화회, 1995, 176~177면. 오줌 꿈 이야기를 선류몽담이라고 하였고, 꿈을 꾸는 사람과 꿈을 사는 사람이 따로 있어 매몽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며, 문희가 이 꿈을 사는 계기로 나중에 왕이 될 김춘추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결혼의 성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 4) 최기숙, 『『삼국유사』 소재 꿈의 서사적 의미와 심리』, 『열상도전연구』 9집, 열상고전연구회, 1996, 77~78면. 오줌 꿈은 예시몽 중 길몽에 속하여 왕후가 될 꿈이었다고 하였다. 득몽을 한 보희는 자신의 꿈을 유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문희는 이 꿈의 상징성을 해독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문희가 값진 물건으로 보희의 꿈을 사는 행위가 일어났으며 꿈의 상징적 징험력을 차지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 5) 최우주, 『『삼국유사』에 나타난 꿈 설화의 분석』,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34~37면. 보희가 오줌 꿈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문희는 그

한 징험을 인지한 능력으로 꿈을 사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서사의 중심인물을 문희로 보면서 오줌 꿈을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보희도 함께 묘사한 연구로는 김재용⁶⁾, 정운채⁷⁾가 있다. 이는 꿈에 대한 해독 능력뿐만 아니라 꿈을 통해 드러난 자매의 다른 성격으로 꿈을 사고판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서사의 중심인물을 문희와 보희로 보면서 꿈을 사고판 것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양미선⁸⁾이 있다. 이는 꿈 이야기를 듣고는 질투심이 일어나 꿈을 사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며 꿈을 판 행위는 교환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본 결과, 이 설화는 대부분 서사의 중심인물을 문희로 보면서 꿈을 사는 행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⁹⁾ 동시에 이는 서사의 중심인물을 보희로 보면서 꿈을 파는

꿈이 호몽이라는 것을 알아 비단 치마 하나로 왕비가 될 기회를 잡았다고 하였다. 이는 꿈을 긍정적으로 해몽하는 사람이나 꿈에 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이 행운과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 6) 김재용, 『한국의 홍수 이야기 연구』, 『구비문학연구』 6집, 한국구비문학회, 1998, 57~58면. 보희는 오줌 꿈을 길조로 생각하지 않고 그 꿈에 부담을 느껴 미래에 군왕과의 만남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꿈을 파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반면에 문희는 오줌 꿈을 길조로 생각하여 미래에 군왕의 만남과 군왕의 탄생이 예상되는 꿈을 사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김춘추의 뜬어진 옷고름을 꿰매는 문희의 능동적 행위는 꿈에 대한 적극적 수용태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 7) 정운채, 『오줌 꿈을 사는 이야기의 전승 양상과 문학치료적 의미』, 『국문학연구』 5호, 국문학회, 2001, 281~299면. 보희는 자신의 소망보다는 예의범절을 중시하여 꿈을 팔게 되었으며, 문희는 앞날에 발생할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다는 의지로 꿈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문희가 보희가 꾸 오줌 꿈의 서사를 자기 자신의 서사로 삼아 새로운 삶을 펼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 8) 양미선, 『질투를 다룬 설화의 문학치료적 효용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32면. 문희와 보희는 경쟁 관계에 있는 자매로서 보희는 오줌 꿈을 팔고 난 후 동생이 왕후가 되었을 때, 문희는 언니의 오줌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질투를 일으켰을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보희는 꿈을 판 행위를 정당한 교환행위로 여겼고 문희는 꿈을 사서 창조적으로 자신의 삶을 열어 나아갔다고 하였다.
- 9) 권태효, 『‘선류몽’담의 거인설화적 성격』, 『구비문학연구』 2호, 한국구비문학회, 1995, 181면. 역사적으로 보아도 꿈을 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인물에게 정상적인 상황이라 아니라도 당위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오줌 꿈을 선류몽이라 명명하였는데, 고려 초에 가) 보희의 선류몽(『삼국유사』 권1 태종춘추공), 보육의 선류몽(『고려왕세기』), 보육지녀의 선류몽(『고려왕세기』), 현정왕후의 선류몽(『고려사』열전)이 나타났다. 가) 오줌 꿈을 산 문희가 후에 왕이 될 김춘추와 인연을 맺게 됨, 나) 오줌 꿈을 꾸 보육이 그의 형의 딸과 혼인함, 다) 보육의 첫째 딸이 꾸 오줌

행위에 대해서는 조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오줌 꿈을 소유했던 보희가 자신의 꿈을 팔아서 그 꿈을 산 문희가 문명왕후가 되는데 근원적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보희의 오줌 꿈 파는 행위는 깊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본 논의는 기존 논의들을 든든한 토대로 하여 매몽설화 <진의매몽>과 <문희매몽>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 이유는 오줌 꿈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오줌 꿈과 더불어 매매 행위를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니 측(진의 언니와 보희)과 동생 측(진의와 문희)으로 나눌 수 있는 같은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이 두 자료가 논의를 이끌어 나아가는데 상호보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두 자료의 차이점은 언니 측(진의 언니와 보희)의 심리적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이에 서사의 중심인물로 내세우지 않던 언니 측(진의 언니와 보희)에 집중하며 오줌 꿈 파는 행위의 의미를 새롭게 도출해보고자 한다. 비록 언니 측(진의 언니와 보희)에 대해 전해지는 자료가 미비하다지만 전해지는 자료가 보다 풍부한 동생 측(진의와 문희)을 통해 언니 측(진의 언니와 보희)의 상을 그려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언니 측(진의 언니와 보희)에 대한 일방적인 추정에 불과하지 않도록 동생 측(진의와 문희)과 균형을 맞추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2. 오줌 꿈 파는 행위의 심리적 특징

이 장에서는 『고려사』의 고려세계(高麗世系) 설화 <진의매몽>과 『삼국유사』의 설화 <문희매몽>의 서사구조를 살펴보면서 오줌 꿈을 판 언니 측(진의 언니와 보희), 오줌 꿈을 산 동생 측(진의와 문희)의 심리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꿈 매매는 오줌 꿈 매매 과정과 오줌 꿈 매매 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꿈을 들께 딸 진의가 사서 당 숙종 황제와 혼인 함, 라) 과부 현정왕후가 낳은 아들이 현종이 됨.

2.1. 설화 <진의매몽>의 서사구조와 꿈 매매의 심리적 특징

『고려사』의 고려세계(高麗世系) 설화 <진의매몽>에서 진의 언니와 동생 진의 자매의 내재한 마음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지점이다. 꿈 매매라는 것은 꿈을 파는 사람과 꿈을 사는 사람 간에 팔고자 하는 마음과 사고자 하는 마음이 공유되고 합의되는 지점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설화에서는 진의 언니와 동생 진의의 꿈 매매를 통해 자매의 드러나지 않던 내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고려사』의 고려세계(高麗世系) 설화 <진의매몽>¹⁰⁾의 서사구조를 살펴보면 자매가 꿈 매매를 하는 동안 각기 취하는 행동방식을 통해 그녀들의 심리를 짐작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려사』의 고려세계(高麗世系)의 서사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보옥은 두 딸을 낳았는데 둘째 딸 진의가 아름답고 재주와 지혜가 많았다.
- 2) 진의가 막 성년이 되었을 때에 그의 언니가 꿈을 꾸었는데 오관산 정수리에 올라 오줌을 누었더니 그 오줌이 흘러 천하에 가득 찼다.
- 3) 진의 언니가 깨어나서 진의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더니 진의가 말하기를, “비단 치마로 그 꿈을 사겠습니다.”라고 하니 진의 언니가 허락하였다.

10) 寶育性慈惠 出家 入智異山修道 還居平那山北岬 又徙摩訶岬 嘗夢登鶴嶺 向南便旋 溺溢三韓山川 變成銀海 明日 以語其兄伊帝建 伊帝建曰 汝必生支天之柱 以其女德周妻之 遂爲居士 仍於摩訶岬 構木菴 有新羅衛土見之曰 居此 必大唐天子來作塔矣 後生二女 季曰辰義 美而多才智 年甫笄 其姊 夢登五冠山頂 而旋流溢天下 覺與辰義說 辰義曰 請以綾裙買之 姊許之 辰義令更說夢 攬而懷之者三 旣而身動 若有得 心頗自負 唐肅宗皇帝潛邸時 欲遍遊山川 以明皇天寶十二載癸巳春 涉海到溟江西浦 方潮退 江渚泥淖 從官取舟中錢 布之 乃登岸 後名其浦 爲錢浦 遂至松嶽郡 登鶴嶺 南望曰 此地必成都邑 從者曰 此八眞仙住處也 抵摩訶岬 養子洞 寄宿寶育第 見兩女悅之 請縫衣綻 寶育認是中華貴人 心謂果符術士言 卽令長女應命 纒踰闕 鼻衄而出 代以辰義 遂薦枕 留期月[閔漬編年 或云一年] 覺有娠 臨別 云我是大唐貴姓 與弓矢曰 生男則與之 果生男 曰作帝建 後追尊寶育 爲國祖元德大王 其女辰義 爲貞和王后. 정운채, 『오줌 꿈을 사는 이야기의 전승 양상과 문학치료적 의미』, 『국문학연구』 5호, 국문학회, 2001, 288~289면. 원문해석을 토대로 한 재해석입니다.

진이는 언니에게 다시 그 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고는 손에 쥐면서 품에 품기를 세 번 하였다. 이윽고 진이의 몸이 움찔하였고 얻는 것이 있는 것만 같았다. 진이는 마음이 자못 뿌듯하였다.

4) 당숙종 황제는 산천을 두루 다니다가 명황천보 12년 계사 봄에 바다를 건너 패강의 서포에 다다랐을 때, 조수가 물러가자 진흙투성이였다. 종관이 배 안에서 돈을 취하여 그것을 깔고는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뒤에 그 포구를 이름 하여 전포라고 하였다. 드디어 송악군으로 와서 곡령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이 땅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시종하던 자가 말하기를, “여기는 곧 팔진선이 사는 곳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들은 마가갑 양자동으로 가서 보육의 집에 묵게 되었다. 당숙종 황제는 두 딸을 보고 기뻐하여 자신의 터진 옷을 꿰매달라고 청하였다.

5) 보육은 그가 중화의 귀인인 줄 알아차리고서 마음속으로 과연 술사의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였다. 곧 말팔로 하여금 명에 응하라고 했더니 겨우 문턱을 넘으려는데 코피가 나와 되돌아 나왔다.

6) 대신 진이가 천침하여 한 달을 머물렀다.

7) 당숙종 황제는 머무른 지 한 달 만에¹¹⁾ 진의에게 태기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떠나면서 말하기를, “나는 당나라 귀족”이라 하고 활과 화살을 주며 말하기를, “아들을 낳거든 이것을 주라”고 하였다.

8) 진이는 득남하였는데 아들의 이름을 작제건이라고 하였다.

9) 진이는 당나라 귀족의 당부대로 아들 작제건이 16세가 되었을 때 활과 화살을 주어 신궁으로 키웠다.

10) 후에 고려에서는 보육을 추존하여 국조 원덕대왕이라 하고 그의 둘째 딸 진의를 정화왕후라고 하였다. 아들 작제건은 경강대왕이 되었다.

이 설화의 서사를 살펴보면, 보육의 두 딸 중 동생 진의가 언니의 오줌 꿈을 비단 치마로 산다. 그리고 나서 진의는 당숙종 황제의 터진 옷을 언니 대신 꿰매고 그와 사랑을 나누게 된다. 진의가 혼전임신 중 당숙종 황제로부터 이별을 당한다. 진의는 홀로 아들 작제건을 낳고 당숙종 황제의 당부대로 활과 화살을 주어 신궁으로 키운다. 후에 진의는 정화왕

11) 민지의 《편년강목》에는 혹 1년 동안이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후가 되고 아들 작제건은 경강대옹이 된다. 이상의 서사를 오줌 꿈 매매 과정과 오줌 꿈 매매 후로 나누어 진의 언니와 동생 진의의 심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려사』의 고려세계(高麗世系) 설화 <진의매몽> 서사 단락(3)에서 오줌 꿈 매매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자. 여기서 진의 언니와 동생 진의가 꿈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드러낸 자기만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진의 언니의 심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깨어나서 진의에게 오줌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 진의 언니는 자신의 일을 제일 먼저 동생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으로 보아 동생과의 관계가 긴밀하고 동생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허락하는 것’을 통해 진의 언니는 동생의 제안에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아 동생의 말을 귀담아듣고 동생의 소망을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줌 꿈 이야기를 다시 한 것’을 통해 진의 언니는 동생에게 대가를 받고 동생이 원하는 방식대로 실제로 따라준 행위를 보아 동생의 성향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란 것을 알 수 있다. 간밤에 꾸 꿈을 말하고 파는 행위의 과정에서 드러낸 진의 언니의 심리는 동생 진의의 심리와 맞닿는 지점이 있었기에 매매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이에 동생 진의의 심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단 치마로 그 꿈을 사겠다고 한 것’을 통해 진의는 언니로부터 꿈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매매욕구를 드러낸 것으로 보아 평소 언니의 것에 관해 관심과 호기심이 있었으며 자신의 것과 비교하며 살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그 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 것’을 통해 진의는 꿈 이야기를 반복하여 듣길 원하는 것으로 보아 오줌 꿈에 대해 느꼈을 정조에 대한 믿음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꿈을 손에 쥐면서 품에 품기를 세 번 하었는데 몸이 움찔하며 무엇인가 얻은 것 같아 뿌듯해졌다는 것’을 통해 진의는 그 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손에 움켜쥐고 나서 품에 세 번이나 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꿈을 소유하고자 한 욕망이 강하고 완벽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려사』의 설화 <진의매몽> 서사 단락(5)~(10)에서 오줌 꿈 매매 후를 자세히 살펴보자. 여기서 진의 언니와 동생 진의가 꿈 매매

후 삶을 진행해나가는 속에서 드러낸 자기만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진의 언니의 심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²⁾ ‘겨우 문턱을 넘자마자 코피가 나와 되돌아 나온 것’을 통해 진의 언니는 윗사람(아버지 보육)이 갑자기 요구한 일에 대해 망설임 없이 따르나 다치게 되자 발걸음을 멈추고 되돌아가는 것으로 보아 윗사람의 명을 우선으로 하였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온전히 수행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꿈을 팔고 난 후 다가온 일 앞에서 진의 언니는 동생 진의와 대치되는 지점이 있었기에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다. 이에 동생 진의의 심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신 당나라 귀인의 웃고름을 껌매게 된 것’을 통해 진의는 윗사람(아버지 보육)이 갑자기 요구하거나 언니 대신 일을 수행하게 되더라도 의구심 없이 따르는 것을 보아 윗사람의 명을 우선으로 하고 언니 대신인 일도 서슴없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숙종 황제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을 통해 진의는 당숙종 황제의 사랑을 특별히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진의도 당숙종 황제를 흠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신하게 된 것’을 통해 진의가 혼전임에도 임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아 당숙종 황제를 연분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별통보와 동시에 활과 화살을 받으며 아들이 태어나면 주리는 당부를 받은 것’을 통해 진의는 혼전임신 중 일방적으로 이별을 당하는 상황에 부닥치고 앞으로 낳을 자식에 대한 양육의 수단만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거나 조율하려고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상황을 마치 운명처럼 담담히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홀로 아들을 출산하고 아들 작제건이 16세가 되었을 때 활과 화살을 주어 신궁으로 키운 것’을 통해 진의는 배우자도 없이 아들을 출산하고 홀로 키우다가 당나라 귀인의 당부대로 간직했던 활과 화살을 내놓은 것으로 보아 당나라 귀인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겼으며 그가 떠나면서 한 당부를 절대적으로 믿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화왕후(貞和王后)로 추존되고, 아들 작제건은 경강대왕이 된 것’을 통해 진의는 왕후, 아들 작제

12) 다만 진의 언니는 서사 단락(5)까지 만이 언급되어 있다.

건은 왕이 된 것을 보아 진의는 언니에게 산 오줌 꿈의 징험이 발휘되어 내적으로 품었던 욕망을 성취하는 대길 운을 맞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설화 <진의매몽>에서 꿈 매매를 살펴본 결과, 진의 언니와 동생 진의의 심리가 드러났고 그 때문에 꿈 매매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서사 단락(5)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설화 <진의매몽>과 설화 <문희매몽>에서 언니 측(진의 언니와 보희)인 오줌 꿈을 파는 사람의 심리적인 차이가 드러난다. 이것을 살펴보면 설화 <진의매몽>에서 진의 언니는 ‘문턱을 넘자마자 코피가 나와 되돌아 나왔다’는 운명적이며 우연적인 상황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꿈 매매 후 자매의 운명이 엇갈리게 되는 중요한 지점이다. 다시 말해 설화 <진의매몽>에서 진의 언니는 우연에 의한 것으로 설정된 것이다. 여기서 조금 더 차이 나는 설화 <문희매몽>은 설화 <진의매몽>과 기본적인 서사가 유사하지만 더욱 원형적인 것으로써 이 지점을 보다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기에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¹³⁾

2.2. 설화 <문희매몽>의 서사구조와 꿈 매매의 심리적 특징

『삼국유사』의 설화 <문희매몽>에서도 설화 <진의매몽>과 같이 언니 보희와 동생 문희 자매의 내재한 마음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지점이다. 설화 <진의매몽>에서 동생 진의는 자신의 욕망을 솔직히 드러내었고, 진의 언니는 동생 진의의 내면을 짐작하여서 동생이 원하는 대로 꿈을 팔고, 동생 진의가 만든 약식의 행위도 잘 따라주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꿈 매매라는 것은 꿈을 파는 사람과 꿈을 사는 사람 간에 팔고자 하

13) 권태효, 『선류몽·담의 거인설화적 심리』, 『구비문학연구』 제2호, 한국구비문학학회, 1995, 176~177면.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희의 선류몽 이야기는 다른 선류몽담에 비해 시대가 가장 앞서는 것이며, 그 담고 있는 내용도 풍부하여 후대에 형성된 선류몽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옥의 딸 선류몽 이야기가 보희의 선류몽 이야기와 흡사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를 염두에 두고 형성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는 마음과 사고자 하는 마음이 공유되고 합의되는 지점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설화 <문희매몽>에서는 언니 보희와 동생 문희의 꿈 매매를 통해 자매의 드러나지 않던 내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삼국유사』의 설화 <문희매몽>¹⁴⁾의 서사구조를 살펴보면 자매가 꿈 매매를 하는 동안 각기 다른 행동방식을 취하는 것을 통해 그녀들의 심리를 짐작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삼국유사』의 설화 <문희매몽>의 서사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29대 태종대왕의 이름은 춘추요 성은 김씨다. 용수 또는 용춘이라고 하는데 각각으로 추봉 된 문흥대왕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진평대왕의 딸 친명부인이고, 비는 문명왕후 문희이니 곧 유신공의 막냇누이 이다.

2) 처음에는 언니 보희가 꿈에 서악에 올라가서 오줌을 누었더니 서울에 가득 찼다.

3) 이튿날 아침에 언니 보희가 동생 문희에게 꿈 얘기를 하자, 문희가 이 말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이 꿈을 사겠어요.”라고 하였다. 보희가 “무슨 물건으로 사겠느냐?” 물었다. 문희가 “비단 치마로 사면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보희가 말하기를 “수락하겠다.”고 하였다. 문희가 옷깃을 열고 반
으려 하니, 보희가 말하기를 “어젯밤 꿈을 너에게 전해준다.”고 하였다. 문

14) 第二十九 太宗大王 名春秋 姓金氏 龍樹 [-作龍春] 角干 追封文興大王之子也 妣眞平大王之女 天明夫人 妃文明皇后文姬 卽庾信公之季妹也 初文姬之姊寶姬 夢登西岳捨溺 瀾滿京城 旦與妹說夢 文姬聞之謂曰 我買此夢 姊曰 與何物乎 曰鬻錦裙可乎 姊曰諾 妹開襟受之 姊曰 疇昔之夢 傳付於汝 妹以錦裙酬之 後旬日 庾信與春秋公 正月午忌日 [見上射琴匣事 乃崔致遠之說] 蹴鞠于庾信宅前 [羅人謂蹴鞠爲弄珠之戲] 故踏春秋之裙 裂其襟紐 曰請 入吾家籬之 公從之 庾信命阿海奉針 海曰 豈以細事輕近貴公子乎 因辭 [古本云因病不進] 乃命阿之 公知庾信之意 遂幸之 自後數數來往 庾信知其有娠 乃嘖之曰 爾不告父母 而有娠何也 乃宣言於國中 欲焚其妹 一日俟善德王遊幸南山 積薪於庭中 焚火烟起 王望之問何烟 左右奏曰 殆庾信之焚妹也 王問其故 曰爲其妹無夫有娠 王曰 是誰所爲 時公昵侍在前 顏色大變 王曰 是汝所爲也 速往救之 公受命馳馬 傳宣沮之 自後現行婚禮 眞德王薨 以永徽五年甲寅卽位 御國八年 龍朔元年辛酉崩 壽五十九歲 葬於哀公寺東 有碑 王與庾信神謀戮力 一統三韓 有大功於社稷 故廟號太宗 太子法敏 角干仁問 角干文王 角干老且 角干智鏡 角干愷元等 皆文姬之所出也 當時買夢之徵 現於此矣. 『삼국유사』 권 제일 기이 제이 [卷 第一 紀異 第二] <태종춘추공> [太宗 春秋公] 정운채, 『오줌 꿈을 사는 이야기의 전승 양상과 문학치료적 의미』, 『국문학연구』 5호, 국문학회, 2001, 285~286면. 원문해석을 토대로 한 재해석입니다.

희는 비단 치마로 값을 치렀다.

4) 열흘 뒤에 유신이 춘추공과 함께 정월 오기일 유신의 집 앞에서 공을 차다가, 일부터 춘추의 옷자락을 밟아서 그 옷고름을 찢어 뜨렸다. 말하기를, “청컨대 내 집에 들어가 꿰매도록 합시다.” 하니, 공이 그 말을 따랐다.

5) 유신이 보희(아해)에게 명하여 꿰매 드리라 하니, 보희(아해)가 말하기를, “어찌 사사로운 일로 가벼이 귀공자를 가까이하겠습니까?” 하고는 사양하였다.

6) 이에 유신은 문희(아지)에게 이것을 명하였다.

7) 공은 유신의 뜻을 알고 드디어 사랑하였다. 그 후로 자주 왕래하였다. 유신이 문희가 임신한 것을 알고 꾸짖어 말하기를 “네가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임신을 하였으니 무슨 일이나?”고 하였다. 이에 나라 안에 말을 퍼뜨리기를 그 누이동생을 불태워 죽이겠다고 하였다.

8) 하루는 선덕왕이 남산에 놀러 가기를 기다려 뜰 가운데 장작을 쌓고 불을 지르니 연기가 일어났다. 왕이 바라보고 무슨 연기냐고 물으니, 죄우가 아뢰어 말하기를 “유신이 누이동생을 불태워 죽이나 봅시다.”고 하였다. 왕이 그 까닭을 물으니, “그 누이동생이 남편도 없이 임신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이는 누구의 소행이나?”고 물었다. 이때 공이 왕을 모시고 앞에 있다가 얼굴빛이 크게 변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그것은 네가 한 짓이로구나. 빨리 가서 구하라.”고 하였다. 공이 명을 받고 말을 달려서 왕의 명을 전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에 드러내어 정식혼례를 올렸다.

9) 진덕왕이 죽자 영희 5년 갑인에 왕위에 오르니, 나라를 다스린 지 8년 용삭 원년 신유에 죽으니 59세였다. 애공사 동쪽에 장사를 지내고 비석을 세웠다. 왕은 유신과 함께 신비한 피와 힘을 합하여 삼한을 통일하고 사직에 큰 공을 세웠으므로 묘호를 태종이라 하였다.

10) 태자 법민과 각간 인문과 각간 문왕과 각간 노차와 각간 지경과 각간 개원 등은 모두 문희가 낳은 이들이니, 그때 꿈을 산 징험이 여기에 나타난 것이다.

이 설화의 서사를 살펴보면, 김유신의 두 누이 중 동생 문희가 언니 보희의 오줌 꿈을 비단 치마로 산다. 그리고 나서 문희는 춘추공의 터진

옷을 언니 대신 꿰매고 그와 사랑을 나누게 된다. 문희가 혼전임신을 하여 그 죄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는데 선덕여왕 덕분에 그 순간을 모면하고 김춘추와 정식결혼을 하게 된다. 후에 문희는 문명왕후가 되고 만이들은 법민왕이 된다. 이상의 서사를 오줌 꿈 매매 과정과 오줌 꿈 매매 후로 나누어 언니 보희와 동생 문희의 심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삼국유사』의 설화 <문희매몽> 서사 단락(3)에서 오줌 꿈 매매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자. 여기서 언니 보희와 동생 문희가 꿈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드러낸 자기만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언니 보희의 심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젯밤 꾸 오줌 꿈을 아침에 동생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보희는 자신의 일을 가장 먼저 동생에게 가감 없이 말하는 것으로 보아 동생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생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통해 보희는 꿈을 파는 것에 대해 상응하는 조건을 내건 것을 보아 자신의 꿈이 길몽임을 예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락하는 것’을 통해 보희는 동생이 대가로 제시한 비단 치마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을 보아 동생의 소망을 들어주기로 한 것을 알 수 있다. ‘어젯밤 꿈을 너에게 전해주겠다고 말한 것’을 통해 보희는 동생이 원하는 방식에 호응하며 실제로 행위를 취해 준 것으로 보아 동생의 마음을 헤아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길 바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밤에 꾸 꿈을 말하고 파는 행위의 과정에서 드러낸 언니 보희의 심리는 동생 문희의 심리와 맞닿는 지점이 있었기에 매매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이에 동생 문희의 심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언니의 꿈 이야기를 듣고는 사겠다고 한 것’을 통해 문희는 언니로부터 꿈 이야기를 듣고서 매매욕구를 드러낸 것을 보아 평소 언니의 것에 대해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단 치마로 사겠다고 한 것’을 통해 문희는 꿈의 가치에 상당하다고 생각한 것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언니의 마음을 흡족 시켜 꿈 매매가 잘 이루어지길 바랐던 것을 알 수 있다. ‘옷깃을 열고 받고자 한 것’을 통해 문희는 꿈을 귀하게 여겼고 그 값진 꿈을 완벽히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비단치마로 대가를 치른 것’을 통해 문희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아 진정으로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삼국유사』의 설화 <문희매몽>에서 서사 단락(5)~(10)에서 오줌 꿈 매매 후를 자세히 살펴보자. 여기서 언니 보희와 동생 문희가 꿈 매매 후 삶을 진행해나가는 속에서 드러낸 자기만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다.¹⁵⁾ 이에 언니 보희의 심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찌 사사로운 일로 가벼이 귀공자를 가까이하느냐며 사양한 것’을 통해 보희는 윗사람(오라버니 김유신)이 갑자기 요구한 일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윗사람의 명을 우선으로 하는 것보다 자신의 내적 움직임이 먼저였음을 알 수 있다. 꿈을 꿔고 난 후 다가온 일 앞에서 보희는 동생 문희와 대치되는 지점이 있었기에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다. 이에 동생 문희의 심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신 김춘추의 웃고름을 꿰매게 된 것’을 통해 문희는 윗사람(오라버니 김유신)이 갑자기 요구하나 언니 대신 일을 수행하게 되더라도 의구심 없이 따르는 것을 보아 윗사람의 명을 우선으로 하고 언니 대신인 일도 거리낌 없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춘추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을 통해 문희는 김춘추의 사랑을 특별히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문희도 김춘추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신을 하게 된 것’을 통해 문희가 혼전에도 임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아 김춘추를 연분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혼전 임신 때문에 불태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소문에 휩싸였다가 구제된 것’을 통해 문희는 혼전임신 중 자신과 아기, 두 생명이 한꺼번에 사라질 지도 모르는 위기를 넘기는 것으로 보아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더라도 그 상황을 감당하며 담담히 견뎌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춘추와 정식혼례를 올리게 된 것’을 통해 문희는 예를 어기며 몰래 한 사랑이 예를 갖추며 공개한 사랑으로 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펼쳐 보일 수 있는 날까지 참고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명왕후가 되고 만

15) 다만 언니 보희는 서사 단락(5)까지 만이 언급되어 있다.

아들 범민(문무왕) 등 훌륭한 자식들을 낳게 된 것'을 통해 문희는 언니에게 산 오줌 꿈의 징험이 발휘되어 내적으로 품었던 욕망을 달성하는 대길 운을 얻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두 설화를 살펴본 결과, 오줌 꿈 매매 과정과 오줌 꿈 매매 후를 통해서 언니 측(진의 언니와 보희)과 동생 측(진의와 문희)의 심리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자매의 심리를 정리해보면, 언니 측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선을 넘어서지 않고 동생의 마음을 짐작하여 아량을 베푼다. 이에 반해 동생 측은 모험적인 것을 추구하고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지 않고 언니의 것이라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적극성을 보인다. 이와 같은 언니와 동생의 심리는 꿈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으며 그 징험이 발휘되는 지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3. 오줌 꿈 파는 행위의 의미

『고려사』의 설화 <진의매몽>과 『삼국유사』의 설화 <문희매몽>에서 언니(진의 언니와 보희)와 동생(진의와 문희)이 꿈 매매(오줌 꿈 매매 과정, 오줌 꿈 매매 후)에서 드러낸 심리를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 장에서는 오줌 꿈 매매 과정에서 언니는 꿈을 말한 행위와 꿈을 판 행위, 동생은 꿈을 사겠다고 말한 행위와 꿈을 받는 행위로 나누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 후 오줌 꿈 파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밝혀 보도록 하겠다.

먼저 언니 측(진의 언니와 보희)의 행위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언니가 꿈을 말한 행위를 살펴보면, 언니는 간밤에 꾸 오줌 꿈을 아침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동생에게 말하였다. 이는 언니가 오줌 꿈이 길몽인지 직감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고민되는 지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언니는 사사로운 일상의 것들을 주고받으며 자라온 동생에게 가장 먼저 지난밤 꾸 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그 의구심을 풀어나가려고

했던 것이다. 이를 보아 이것은 꿈에 대한 무지함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언니가 꿈을 판 행위를 살펴보면, 언니는 동생의 꿈을 사겠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팔고자 하였다. 이는 언니가 자신의 꿈이 길몽이라고 직감했기 때문에 비단 치마라는 대가를 받기로 했던 것이다. 그래서 언니는 동생이 가슴에 온전히 자신의 오줌 꿈을 품어 안길 바라는 대로 너에게 전해준다고 말하거나 자신의 꿈 내용을 다시 말하면서 정성스럽게 양도해 주는 행위를 했던 것이다. 즉, 언니는 동생이 꿈을 팔기를 요구했을 때 고민하며 망설이거나 팔지 않겠다고 하거나 자신의 꿈 덕분에 미래에 행운을 얻는다면 후사를 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또한, 비단 치마만 받길 바라며 꿈을 성의 없는 태도로 양도하지도 않았다. 이를 보아 언니의 꿈을 파는 행위는 동생의 요구대로 주체성 없이 따라주지만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잘되길 바란 선한 의지가 동반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동생 측(진 의와 문희)의 행위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생이 꿈을 사겠다고 말 한 행위를 살펴보면, 동생은 언니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신이 그 꿈을 사겠다고 하였다. 이는 동생이 아침부터 꿈 이야기를 꺼내 놓는 언니의 고민 지점을 눈치켰으며 자신은 언니와는 다르게 그 고민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또한, 동생은 자신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고 싶었던 내재한 마음이 언니의 오줌 꿈에 투영되어 자신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이 여겼던 것이다. 그래서 동생은 언니에게 오줌 꿈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갖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다. 이에 동생은 비단 치마를 대가로 지불하면서 그 꿈을 사겠다는 제안을 즉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보아 동생의 꿈을 산 행위는 순간적인 꿈에 대한 끌림이나 호기심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동생이 꿈을 받는 행위를 살펴보면, 동생은 언니에게 꿈을 팔라고 요구하고 나서 약식이지만 스스로 만든 꿈을 주고받는 의식을 치렀다. 이는 동생이 언니의 꿈을 완벽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동생은 자신의 삶을 자신 있게 펼치고 싶었는데 그 계기를 언니의 꿈을 통해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동생은 언니의 꿈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꿈을 받는 의식을 만들어서 엄숙하게 언니로부터 꿈을 인수받으
자 했던 것이다. 이를 보아 동생의 꿈을 사는 행위는 꿈에 대한 순간적인
이끌림이나 언니 것에 대한 탐욕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언니로부터 동
의를 얻을 만한 희망적인 의지가 동반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앞서 두 설화를 통해 꿈 매매 과정에서 자매의 행위를 따라가 보면서
그녀들의 심리를 들여다보았고, 이 때문에 순조롭게 오줌 꿈 매매가 이
루어지게 된 것을 살펴보았다. 이에 다시 꿈 매매 과정을 정리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언니는 자신의 꿈 이야기를 발설하였다. 둘째, 언니가
길몽임을 직감했어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지 않아 매매의 가능
성이 생겼다. 셋째, 동생은 그 꿈의 가치척도가 될 만한 대가를 주고자
했을 때 거래를 성사시켰다. 넷째, 동생은 스스로 약식의 의식을 만들어
언니에게 그 의식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다섯째, 언니는 동생이
원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자매가
모두 오줌 꿈이 길몽이었다는 것을 직감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달리 말
하면, 하나의 길몽을 두고 두 자매 사이에 꿈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길몽의 매매란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와는
다른 지점이 있다. 길한 운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 심리라고 한
다면 꿈을 산 사람은 이와 같은 심리를 따르나 꿈을 판 사람은 이 심리
를 거슬린다. 이에 ‘길몽의 매매’를 통해 인간의 기본 심리를 바탕으로
자매의 공통된 심리와 자매의 차별된 심리로 나누어서 보다 자세히 살펴
보자.

먼저 자매의 공통된 심리를 살펴보면, 자매는 둘 다 길운을 얻고자 한
내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꿈은 억압된 충동이나 무의식적 소망이
동작으로 표현될 수 없으므로 생각이나 환상을 통한 표현방법으로 나타
나 개인의 무의식을 이해하는데 꿈만큼 좋은 것이 없다¹⁶⁾고 하였다. 이
것을 볼 때 언니가 꾸는 꿈은 언니의 무의식적 내면이 투영되어 나타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언니의 꿈 이야기를 들던 동생이 비록 자신이

16) 이근재, 『Freud와 Jung의 꿈의 해석에 대한 관점의 비교』, 『논문집』 제6집, 부산교육
대학교, 2004, 426면.

꿈은 아니지만 꿈을 사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니 동생의 잠재되어 있던 욕망도 언니의 오줌 꿈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언니의 오줌 꿈은 동생의 무의식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자매는 오줌 꿈을 통해 각자 원하던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소망을 표출시킨 것이다.

다음은 자매의 차별된 심리를 살펴보면, 동생은 길운을 소유하고자 하였고, 언니는 길운을 전해주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꿈을 사고자 한 동생은 길운을 바랐고 이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 잘 맞았다고 볼 수 있다.¹⁷⁾ 그러나 길운인지 알면서도 꿈을 판 언니는 어떤 심리가 작동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취하였을까? 언니는 자신이 꿈 오줌 꿈이 길몽임을 직감하였다. 그런데도 동생에게 그 길몽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그것은 언니의 내면에 있는 동생을 향한 애정과 선한 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것은 길한 운을 자신이 소유하지 못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동생에게 전해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이와 같은 심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줌 꿈은 자신의 욕망이 투영되어 상징으로 나타난 것이기에 비록 자신이 아닌 동생이 소유하였다라도 자신의 욕망이 동생을 통해 실현되길 바랐던 것이다. 그래서 언니가 오줌 꿈을 꾸고 나서 동생에게 자신의 꿈을 말할 때 이미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암시되었고, 이는 곧 매매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것이다. 이것은 꿈 이야기는 함부로 발설하면 좋지 않다고 하며, 길몽일 경우 남에게 발설하지 않아야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대몽일 경우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함구해야 한다는 속신¹⁸⁾에서 추측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언니가 비단 치마를 받고 동생에게 꿈을 판 행위는 단순히 매매행위로 여기기에는

17) 최혜영, 『테메테르와 유희 : 농경 및 유목민 신화로 본 동서 문명 교류 가능성』, 『역사와 경제』 제58권, 부산경남사학회, 2006, 83면. 미디어 공주 만다네 이야기에서 메디아 왕은 딸이 낳을 아들이 천하를 호령할 것이라는 오줌 꿈의 해몽을 듣고서 딸이 낳은 아이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는데 세월이 흘러 그 아이가 오리엔트를 재통일한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서 메디아 왕의 행동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인간이 길한 운을 자신이 차지하여 오랫동안 누리하고자 하는 욕망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8) 최명림, 『한국설화의 꿈 설화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68면.

미진한 부분이 있다. 언니는 꿈을 팔 때 동생이 정해놓은 방식대로 따라 자신의 꿈을 전해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는 언니가 진정으로 동생이 그 꿈의 주인이 되어 징험이 발휘되길 바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 도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꿈을 산 동생은 언니의 꿈을 통해 이미 정해진 길운을 얻었다고만 할 수 있는지, 꿈을 판 언니는 동생에 대한 배려이기에 한 것인지 또다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 의문에 대해 먼저 꿈을 산 동생을 살펴보면, 동생은 결과적으로 언니의 오줌 꿈 덕분에 왕후가 되고 왕이 될 아들을 낳게 되어 꿈의 위력을 얻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동생은 혼전임신 중 이별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거나 혼전임신을 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징벌을 받게 될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다. 언니의 오줌 꿈을 산 동생은 겪어야 할 것이 있었으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던 것은 언니의 오줌 꿈을 길몽으로 직감하고 사고자 했던 행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긍정과 희망을 선택해서 자신의 삶에 심어놓는 마음을 변함없이 가졌기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결국 그와 같은 마음의 지속은 훗날 온전히 꿈의 위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꿈을 판 언니는 자신의 오줌 꿈을 산 동생이 위기의 상황에 부닥치고 그 상황을 겪고 넘어서 왕후가 되고 왕의 어머니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면 오줌 꿈을 꾸고 느꼈던 고민 지점이 무엇이었는지, 길몽의 직감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를 보아 언니가 꿈을 판 행위는 동생에 대한 배려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가늠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결국, 언니는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선한 의지로 동생에게 귀한 꿈을 주었고, 동생은 그 꿈의 징험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언니의 오줌 꿈은 그 꿈을 사서 적극적으로 삶을 이끌어간 동생을 통해 더욱더 빛나게 되었고, 그 꿈 때문에 언니는 동생이 왕후가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항상 존재하게 된 것이다. 언니는 자신의 소망이 투영된 오줌 꿈이 길몽인지 직감하게 되었고, 그 꿈을 원했던 동생에게 전해주었다. 이는 언니의 배려이고 아량을 드러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동생을 통

해 우회적으로라도 자신의 소망이 성취되길 바랐던 것이다.

본 논의는 매몽설화 <진의매몽>과 <문희매몽>에서 꿈 매매(꿈 매매 과정, 꿈 매매 후)를 살펴본 결과, 오줌 꿈을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 자매의 심리적 특징을 드러내어 파악할 수 있었고 그것이 오줌 꿈의 징험이 발휘되어 영위할 수 있게 만든 근원적 핵심이었음을 말하였다. 또한, 오줌 꿈 매매는 길몽의 매매라고 보면서 오줌 꿈 파는 행위의 의미를 추출해 보았다. 그래서 밝혀낸 오줌 꿈 파는 행위의 의미는 자신이 귀한 것을 소유하더라도 가치 있게 영위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의 소망을 짐작하여 줄 수 있는 아량을 베푸는 것이다. 즉, 이것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가늠하여 상대방을 드높여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자신이 비록 귀한 자신의 것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소유한 상대방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의 욕망도 성취되길 바란 뜻이 있다는 것이다.

4. 결론

이 논문은 『고려사』의 설화 <진의매몽>과 『삼국유사』의 설화 <문희매몽>에서 오줌 꿈 매매를 통해 오줌 꿈 산 사람과 오줌 꿈 판 사람의 심리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궁극적으로 오줌 꿈 파는 행위의 의미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오줌 꿈 파는 행위의 심리적 특징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에 오줌 꿈 화소를 담고 있는 설화 <진의매몽>과 <문희매몽>을 선택하여 두 설화에서 서사구조와 꿈 매매의 심리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때 꿈 매매는 오줌 꿈 매매 과정과 오줌 꿈 매매 후로 나누고, 꿈을 판 사람인 언니 측(진의 언니와 보희)과 꿈을 산 사람인 동생 측(진의와 문희)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꿈 매매는 꿈을 팔고자 한 언니와 꿈을 사고자 한 동생 간에 서로 맞닿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하였다. 언니는 선한 마음으로 배려와 아량을 보였고, 동생은

희망적인 마음으로 소유욕, 적극성을 보였는데 자매의 이와 같은 심리적 특징이 꿈 매매를 성사시켜 그 징험을 발휘할 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았다.

3장에서는 오줌 꿈 파는 행위의 의미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오줌 꿈의 매매는 길몽의 매매였다고 보았는데, 이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와 배치되는 것이므로 여기서 오줌 꿈 파는 행위는 어떤 의미가 숨어있는지도 출할 수 있었다. 길몽인 오줌 꿈을 판다는 것은 언니가 자신보다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동생이 주인 되어서 진정으로 꿈의 징험이 발휘되길 바란 뜻이 있던 것이다. 이는 동생이 언니에게 오줌 꿈을 비단 치마로 사겠다고 한 다음 스스로 만든 약식의 의식에 따라 달라고 부탁했을 때 언니가 동생의 원하는 방식 그대로 수행해 준 것이 증명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해, 오줌 꿈 파는 행위의 의미는 귀한 것이 있을 때 자신이 그 귀함을 영위하기 어렵다면 그것을 소망하는 이에게 선한 마음으로 줄 수 있는 아량을 베푸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가늠하여 상대방을 드높여주는 행위를 한 것이고, 그 이면에는 자신의 소망도 상대방을 통해 성취되길 바란 뜻이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 권태효, 「‘선류몽’담의 거인설화적 성격」, 『구비문학연구』 제2호, 한국구비문학회, 1995, 176~181면.
- 김재용, 「한국의 흥수 이야기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6집, 한국구비문학회, 1998, 57~58면.
- 박계옥, 「선류몽 설화의 신화론적 고찰」, 『새국어교육』 제77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7, 690~692면.
- 양미선, 「‘질투’를 다룬 설화의 문학치료적 효용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32면.
- 이근재, 「Freud와 Jung의 꿈의 해석에 대한 관점의 비교」, 『논문집』 제6집, 부산교육대학교, 2004, 426면.

- 이윤석, 『삼국유사』에 들어있는 ‘夢’자에 관한 소고, 『한국전통문화연구』 제1집,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85, 93면.
- 정운채, 『오줌 꿈을 사는 이야기의 전승 양상과 문학치료적 의미』, 『국문학연구』 제5호, 국문학회, 2001, 281~299면.
- 최기숙, 『삼국유사』 소재 꿈의 서사적 의미와 심리, 『열상도전연구』 제9집, 열상도전연구회, 1996, 77~78면.
- 최명림, 『한국설화의 꿈 설화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68면.
- 최우주, 『삼국유사』에 나타난 꿈 설화의 분석,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34~37면.
- 최혜영, 『데메테르와 유화 : 농경 및 유목민 신화로 본 동서 문명 교류 가능성』, 『역사와 경제』 제58권, 부산경남사학회, 2006, 83면.

<저서>

- 우리문화 기획팀, 『우리 꿈 큰 사전』, 동학사, 2002, 87~88면.

Abstract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Urination-dream Trade in Tales

Noh, Young-Un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urination-dream trade in the Maemong tales of <Jineui Maemong> in 『Goryeosa』 and <Munheui Maemong> in 『Samgukyusa』 of which main topic is the dream trade in order to study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ones that sell the urination-dream and the ones that buy the urination-dream and also figure out the meanings of urination-dream trade. To examine it, this paper studies each tale dividing it into the older sister's position of selling the urination-dream and the younger sister's position of buying the urination-dream. First of all, it examines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elling the urination-dream. While the older sister shows consideration and generosity, the younger sister shows acquisitive instinct and aggressiveness. This psychology of the sisters affects the process of the dream trading and also the process until the dream exhibits its effect. Next,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s of selling the urination-dream. The urination-dream trade is the trade of lucky dream, but this opposes to the general psychology of men. The older sister's selling of her lucky urination-dream means that she hopes her little sister intending to buy the dream to enjoy the effects of the dream. It can be found from the scene that after the younger sister decided to buy her older sister's urination-dream with the silk skirt, she asks her older sister to follow and conduct the small ritual she made on her own, and then the older sister was willing to do so. After all, this also implies that the act of selling a

urination-dream is the act of understanding oneself right and enhancing the status of the other, and in the backside of it, there is also the person's wish to realize his or her own wish through the other person.

key words : Maemong, lucky dream, effects, generosity, urination-dream trade

소 속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 hairann@hanmail.net

투고일 12. 02. 10 / 심사완료일 12. 02. 29 / 게재결정일 12. 03. 08